

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: 어머니-유아 관계, 교사-유아 관계의 중재효과

서 은 희(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) · 이 미 숙(가톨릭대학교 교수)

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-유아 관계, 그리고 교사-유아 관계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데에 있다. 이를 통해 가정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236명과 그의 어머니 236명, 담임교사 15명이다.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란(2003)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개발한 부모용 유아 자기조절척도를 사용하였다.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원영미(1990)가 번안하여 사용한 Thomas와 Chess(1977)의 부모용 3~7세 유아 기질 질문지(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: PTQ)를 사용하였다. 어머니-유아 관계는 Rohner(2005)의 수용-거부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나은숙과 이종인(2008)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, 교사-유아 관계는 Pianta (1991)가 개발한 교사-유아 관계 척도(Student-Teacher Relationship Scale: STRS)를 번안·수정하여 사용한 이진숙(2001)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. 자료분석은 SPSSWIN 15.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, 빈도와 백분율, Cronbach's α 계수, 평균과 표준편차, Pearson 상관관계, 단순 회귀분석,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인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.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-유아 간 애정관계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어머니와 유아 간의 애정적 관계가 조절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어머니-유아 간 애정관계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에는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보다 낮은 유아의 경우 행동 및 정서조절능력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, 어머니-유아 간 거부관계는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. 셋째,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교사-유아 관계의 친밀감과 갈등은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결과,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지며, 이때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더 많이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,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특히,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. 또한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.